

## 국내경기는 6개월 연속 개선

～ 관광산업 및 반도체수요가 견인, 향후는 일중(日中)관계 동향에 주목～

(조사 대상 2만 4,531 사, 유효회답 1만 207 사, 회답율 41.6%, 조사개시 2002년 5월)

## 조사결과의 포인트

1. 2025년 11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0.2포인트 증가한 44.1로 2020년 11월 이래 5년만에 6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사업단가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관광산업 및 반도체 수요의 호조로 개선경향이 계속되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소폭 변동을 동반하며 완만한 회복이 계속될 전망이다.
  2. 『운수·창고』『도매』 등 4개 업계에서 개선, 특히 『농·임·수산』은 2개월 연속 과거최고를 갱신하였다. 한편 5개 업계가 악화되어 보합은 1개 업계였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개선되었으나 「소규모기업」은 악화되었다. 지역별로는 5개 지역이 개선, 5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건설 및 이벤트 관련 수요 등이 지역 경제의 명암을 갈랐다.
  3. [이번달의 토픽스] 기업으로부터는 취임 2개월째인 다카이치 정권의 정책에 대하여 기대하는 목소리가 폭넓게 들려오면서 긍정적인 의견이 50%를 넘었다.



### < 2025년 11월의 동향 : 개선경향 >

2025년 11월의 경기DI는 44.1로 전월대비 0.2포인트 증가하였다. 2020년 11월 이래 5년 만에 6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사업단가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관광산업 및 반도체 수요의 호조로 개선 경향이 계속 되었다.

11월은 가을 여행 시즌을 맞이하여 관광산업이 견조하게 상향하였다. 게다가 『동·임·수산』의 체감경기는 2개월 연속 과거 최고를 갱신하였다. AI수요 확대를 배경으로 반도체나 전기기계와 관련된 생산도 호조였다. 설비가동율은 개선 경향이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시간외노동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원재료 등 사업단가 상승이나 곰 출몰로 인한 외출 자체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 < 향후의 전망 : 완만히 회복 >

향후는 일중(日中)·미중(米中)관계 동향이 주목된다. 임금인상 및 동계상여, 물가고 대책을 포함하는 종합경제대책 실시로 인한 가계의 실질구매력 회복이 열쇠가 될 것이다. 여전한 여행수요나 반도체 등 AI관련 설비투자는 경기를 지탱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재정확대에 따른 장기금리상승이나 일본은행의 정책금리인상, 환율 변동, 일중(日中)관계의 불안정화, 인력부족은 우려요소가 될 것이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소폭 변동을 동반하며 완만한 회복이 계속될 전망이다.

